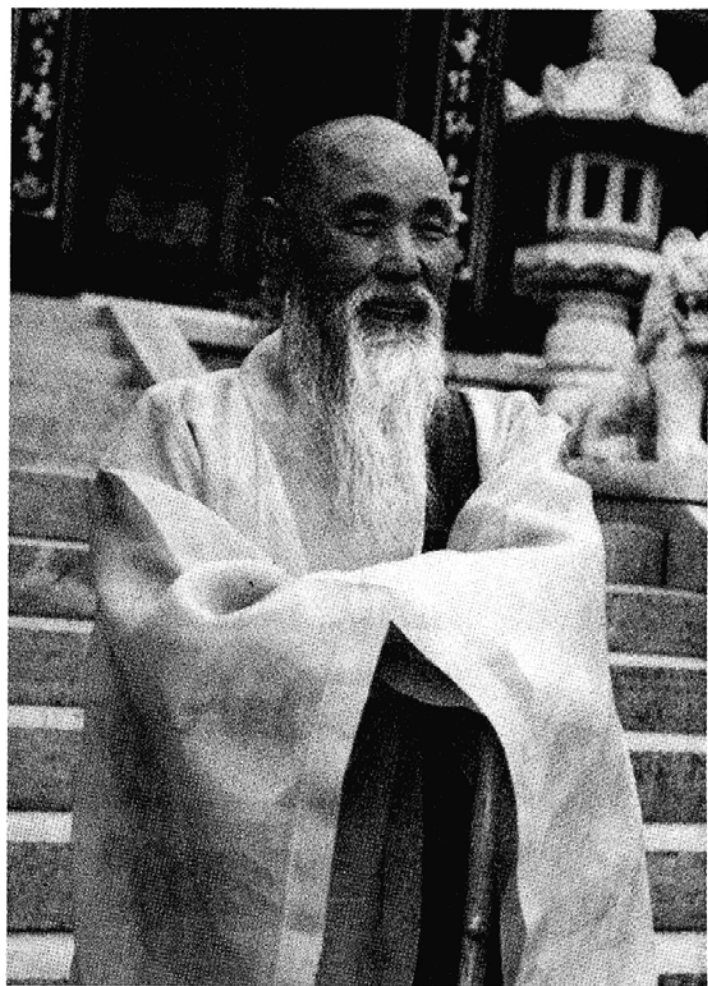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비워야 답을 수 있으니

화엄스님 (동림사 조실)



1924년 일본 오오사카 생
1945년 일본 대판의학전문 졸
1948년 범어사에서 하동산스님
을 은사로 출가
1973년 범어사 주지
1974년 영구암 주지
現 김해 동림사에 주석

“삼세 부처님 바로 받드는 길은
‘나’라는 생각마저 지우고
이웃을 공경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극정성으로 빌었던 것이요. 내가 만들었
던 등을 갑나무에 걸어놓고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새벽까지 지장보살을 염하
고 돌아오곤 하는게 하루일과였어요.
나는 그때 남쪽 나라에서 패잔병이 되
어 산에 숨어 있으면서 미군들이 버린
음식을 훔쳐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죠. 사
람같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포위
되어 나를 제외하고 모두 진멸했습니
다. 그때 다친 다리 때문에 지금도 고생
을 좀 하고 있죠. 모두가 죽었는데 나는
시체에 일주일정도 파묻혀 있다보니 썩
은 진물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때 인생을

다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러던
어느날 밤에 모친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하고 시체
더미를 헤치고 나와보니 등불이 뱅뱅 돌
면서 나를 따라오더라 하는 어머니의 음
성이 들렸어요. 나는 아픈 다리를 끌며
등불을 따라 움직여 포위가 되었죠. 그들
게 고향으로 돌아와 모친을 상봉하게 되
었는데 모친이 등불을 잃어버린 날짜와
내가 그 등불을 발견한 날이 일치하더라
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어머니의 지
극한 기도의 힘에 의해 생환하게 되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벌써 죽었어

야 될 사람인데 신장님의 가피로 살아났
으니 부처님의 은혜도 깊고 어머니의 은
혜도 깊기 위해서는 중이 되어 수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져 먹고 등산스
님을 은사로 출가하게 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출가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않습니다. 좋은 속세에서는 거지노릇을
했다라도 일단 계발고 가사장삼 수하면
부처님이 앉았던 금방석에 앉아요. 아무
리 세상에서 거지처럼 얻어 먹다가도 일
단 중이 되면 임금같은 대접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복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도 조심하고 한공의 시중들도 무서워하
고 옷 하나로 일생동안 땀어린 등 검
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없어서 어려운 것
보다 많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호
강을 돌리치고 조용히 지족(知足)한 생
활을 해 나가야 진정한 불제자라 할 것
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싶던 말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범지품 (梵志品) ②

解微妙慧 해미묘혜
辯道不道 변도불도
體行上義 체행상의
是謂梵志 시위범지

세상 일과 인연을 끊고
말 중에 거친 말 없으며
팔정도를 살펴 아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所世惡法 소세악법
修短巨細 수단거세
無取無捨 무취무사
是謂梵志 시위범지

이 세상의 나쁜 법이면
길거나 짧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취하느니 버리느니 함도 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今世行淨 금세행정
後世無纏 후세무에
無習無捨 무습무사
是謂梵志 시위범지

이승의 행이 깨끗하면
내생에 더러움 없으리니
물드느니 버리느니 함이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樂身無捨 기신무의
不講興行 불승이행

생활 살림살이 다 버리고
집 없는 두려움도 버리고
적게 구하고 욕심 적은 이
이를 범지라 한다

미묘한 지혜 깨달아 알고
도와 도 아닌 것 잘 가리고
으뜸의 이치 품으로 행하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棄損家居 기손가거
無家之畏 무가지의
少求寡欲 소구과욕
是謂梵志 시위범지

제 집 생활 다 버리고
집 없는 두려움도 버리고
적게 구하고 욕심 적은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棄放活生 기방활생
無礙善心 무애해심
無所憊惱 무소소요
是謂梵志 시위범지

생활 살림살이 다 버리고

다투지 않고 덤벼도 성내지 않으며
악이 찾아와도 항상 선으로 대하네

남을 해칠 생각 없고
번거롭고 괴로운 일 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行甘露滅 행감로멸
是謂梵志 시위범지

몸을 버려 의지함이 없고
외도의 일 입에 담지 않으며
감로법을 행해 적멸에 든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於罪與福 어죄여복
兩行永除 양행영제
無憂無懼 무우무진
是謂梵志 시위범지

죄나 복을 다 함께
영원히 없애어서
근심도 없고 번뇌도 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心喜無垢 심희무구
如月盛滿 여월성만
誘毀已除 방취이제
是謂梵志 시위범지

마음이 기쁘고 허물없음이
마치 보름달 같아서
비방과 헐뜯음을 이미 없앤 이
이를 범지라 한다

避爭不爭 피쟁부쟁
犯而不懼 범이불은
惡來善待 악래선대
是謂梵志 시위범지

다툼을 피하고 다투지 않고
덤빈다고 성내지 않으며
악이 찾아와도 선으로 대하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去嫉怒癡 거음노치
憍慢諸惡 교만제악
如蛇脫皮 여사탈피
是謂梵志 시위범지

음욕·노여움·어리석음을 없고
고만과 여러 나쁜 것 버리되
뱀이 껍질 벗듯이 한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斷絕世事 단절세사
口無추言 구무추언
八道奮誦 팔도심체
是謂梵志 시위범지

龍眼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돌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寺)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 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66 / 3,500원